

시민의 안전행동 동인으로서 안전욕구에 대한 탐색적 연구

- Maslow의 욕구이론을 토대로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afety Needs as a Motivation of Citizen's Safe Behavior

- Based on Maslow's Hierarchy Theory of 5 Basic Needs -

Jae Ho Seo*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aeyun-dong, Nam-gu, Busan, Korea

Abstract

The first responsibility of disaster prevention is citizens themselves, so citizens' personal knowledge and behavior as to risk and safety is very important in disaster management. Because motivation theory says that safety needs is strongly related safe behavior, to promote safety in a society as a whole a study on the safety needs and safety behavior is inevitable. Based on this theoretical background this study surveyed citizens who living i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measured the important basic needs using Maslow's hierarchy of 5 needs. The result showed that physiological needs was the most important needs among 5 basic needs and safety needs was the second important. People living in Busan considered belonging needs the most when they decide daily life. To find out the influencing factor of the safety needs this study built 3 regression model questingly. The result showed education, income, family size influenced on the citizen's safety needs. Based on this result this study proposed several further research topics.

Key words: Maslow's hierarchy of 5 needs, safety needs, safe behavior, motivation of safe behavior

* Tel. +82-51-629-5461, Fax, +81-51-629-5456. E-mail, jaseo@pknu.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Apr. 25, 2015 / Revised: May. 22, 2015 / Accepted: June. 5, 2015

국문초록

국가와 함께 재난과 사고발생의 책임은 '개인'에게도 있으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일선에 있는 관리자 또한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지식의 습득과 안전행동은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인 동기이론에 따를 때 안전욕구가 안전행동의 동기와 관련된다. 사회의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욕구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배경 위에 이 논문은 Maslow의 욕구 5단계를 토대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우리사회 시민의 안전욕구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부산 시민의 안전욕구에 대한 중요도 인식 수준은 생리적 욕구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에서 안전욕구의 반영은 사회적욕구 다음으로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욕구의 반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타 욕구요인, 문화와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학력, 수입, 가족의 규모가 정의 관계를, 욕구에서는 생리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가, 문화 및 환경요인에서는 환경개선 필요성이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Maslow의 욕구 5단계이론, 안전욕구, 안전행동, 안전행동동기

1. 서론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양한 재난과 안전사고를 경험했다. 2014년 한해에만 경주의 마우나 리조트 붕괴로 시작하여 진도 앞바다의 세월호 참사, 판교 지하철 환풍구 추락사고 등 수 많은 인명의 손상을 가져온 충격적인 재난과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의 재난과 사고는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었다. 2013년 2월 출범이후 현 정부가 단행한 대표적인 조직개편이 2014년 11월 이루어진 국무총리소속의 국민안전처의 신설이었으며 지방정부 또한 중앙정부의 개편에 대응하여 지역의 안전 관련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개입만으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지하철환풍구 추락사고에서의 예처럼 재난과 사고발생의 책임은 국가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있으며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일선에 있는 관리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지식의 습득과 안전행동은 정부의 사고예방과 대응역량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최근의 '안전'이슈 부각은 주민의 안전인식과 행동 유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된다.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재난상황과 안전사고에 대한 기사는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사회가 얼마나 위기와 재난에 취약한지를 자각시켜주며,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생을 영위하고자 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동기이론의 하나인 Maslow의 동기이론(Motivation theory)에 따를 때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높으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개인은 안전욕구가 발생하고, 이러한 안전욕구는 개인의 안전행동을 위한 동기를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사고발생을 줄이는 행동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의 반복적인 발생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견된다.¹⁾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반복적인 재난상황 속에서 실제 우리나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과연 높아졌는지는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안전욕구가 높을 경우 위험한 행동을 개인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되고, 그 결과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현재까지 미디어 기사에는 어처구니 없이 발생하는 작은 재난사고들과 안전사고로 넘쳐나고 있으며 이는 기대와는 반대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 우리나라 주민의 안전욕구가 과연 다른 욕구보다 실제로 높은가’라고 하는 물음을 제기한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반복적인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의 대상자인 개인이 사고의 발생과 피해를 예방하는 행동을 선택해야 하며 이러한 선택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선택 동기로 작용하는데, 현재의 재난과 사고발생의 실체는 이러한 안전 확보를 위한 행동의 동기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듯 재난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안전행동을 위한 동기유발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에서는 개인의 안전욕구와 안전행동동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련 주된 연구는 정부의 재난대응과 예방체제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있었는데, 재난발생 이후 재난관리를 위한 정부 관리시스템의 작동상 문제와 개선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정부의 재난관리를 위한 공식제도에 대한 연구 이외에 개인의 인지와 관련된 접근도 하나의 연구경향을 띤다. 대표적으로는 Slovic류의 위험인식 연구로 이는 대개 어떤 위험이 한 사회에 주된 위험원이며 이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의 인식은 어떠한가와 어떤 요인이 이러한 위험인식에 영향을 주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다 거시적인 연구의 경우 한사회의 안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안전행태와 관련된 안전문화 조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개인의 안전욕구와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CCTV를 활용한 시민의 안전욕구충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박영만 외, 2011; 김찬선, 2008; 유영창 외, 2009)가 있으며 시민의 안전욕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른 욕구수준과 비교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한 사회의 안전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의 안전행동을 유도하는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하고 전통적인 동기이론에서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안전행동의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안전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욕구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배경 위에 이 논문은 Maslow의 욕구 5단계이론에 토대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우리사회 시민의 안전욕구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Maslow가 제시한 인간의 동기유발과 관련된 보편적인 다섯가지 욕구구분인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사회적욕구, 존경욕구, 자아실현욕구’를 활용하여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안전욕구의 정도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안전욕구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안전동기를 활용한 향후 연구의 시사점과 안전행동의 동인으로서 안전동기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Maslow의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동기이론은 기업과 같은 조직에서 개인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되지만, 하나의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경우 욕구에 따른 동기부여의 인센티브는 사회라는 외부에서 개인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행동을 유도하는 중요한 동기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II. 안전의 개념과 안전육구

1. 안전의 개념과 안전행동의 동기

안전은 개인과 사회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론적으로 공통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Maurice, *et al.*, 1998).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는 ‘안전’의 요소와 영역이 제각기이기 때문이다. 안전은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객관적인) 예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주관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복지의 영역에서는 사회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일련의 시스템을 ‘사회안전망’ 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안전은 생존을 위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상태를 의미한다(Holzman, 2001). ‘안전’개념이 가진 이 같은 특징을 고려하면 안전의 개념 정립은 일차원적 접근보다는 복합적·다차원적 접근이 적절하다.

안전은 ‘개인의 주관적인 상태로서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안전의 일반적인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안전은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유발하는 위험원(hazards) 또는 물리적 (환경)조건이 통제됨’을 의미하며(Maurice, *et al.*, 1998), 따라서 현재 손상이 없어 주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위험발생의 가능성 또는 위험이 초래하는 피해의 규모가 막대하여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Forde, 1993). 육체적·정신적 건강 뿐 아니라 경제적 안전을 포함하여 육체적·정신적·경제적 손상에 대한 위험원을 통제하는 확장된 안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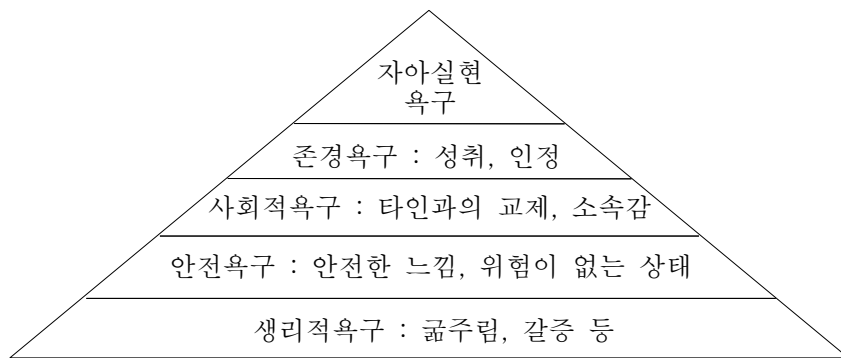
이러한 개념에서 안전은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조건’의 복합적 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Bailey, *et al.*, 2010). 또한 ‘개인’과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관계로 구조화될 수 있으며, 개인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통제’ 여부에 따라 안전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안전의 개념은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조건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과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관계의 통제 여부에 따라 안전한 또는 안전하지 못한(위험한) 상태가 된다. 일반적으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회피하고자 하는 개인은 안전한 행동을 하고자 하며, 안전행동을 유도하는 동력의 집합을 안전동기 라고 할 수 있다.

2. Maslow의 욕구이론과 안전육구

안전은 인간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안전은 인간육구의 기본 요소 중 근본적인 욕구에 해당된다(Steers, *et al.*, 2004). 개인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WHO는 1989년 안전도시 선언서(Manifesto for Safe Communities)에서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건강과 안전의 평등한 권리를 선언했다(WHO, 1989). 또한 UNDP의 인간발전보고서에

서도 안전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UNDP, 1994).

개인차원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보장해주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해야 하며 의식적인 안전행동을 유도하는 안전행동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통제되는 조직의 구성원과 달리 일반 시민 개인의 안전행동 동기부여는 제3자에 의해 부여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순수히 개인의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욕구이론의 창시자인 Maslow(1968)는 욕구계층론에서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의 다섯 계층으로 구분하였다.²⁾ Maslow가 제시한 다섯가지 욕구 중 안전욕구는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이후 동기유발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욕구이다. 이 때 안전욕구는 두려움과 혼란이 없는 상태에 대한 욕구로, 전쟁, 자연재해, 학대 등이 없는 상태로 개인의 물리적 안전 욕구, 질병이나 사고가 없는 건강과 안녕 욕구를 포함한다. 개인의 욕구로서 ‘안전’은 개인의 물리적 위험, 경제적 위험, 건강과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서의 질서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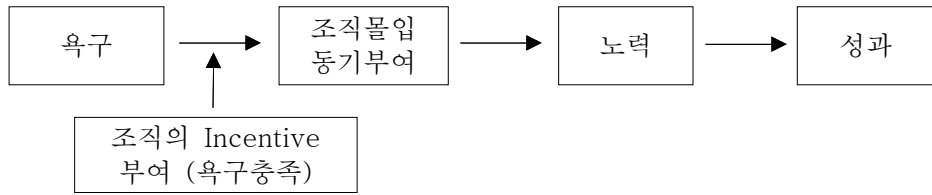
※ Brown, et. al., 2005(Atkinson, 1993 재인용); Crook, 1997.

<그림 1> Maslow의 욕구계층

Maslow의 욕구이론은 인간의 동기유발(motivation)과 욕구(needs)를 연계했다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다. Maslow의 다섯 가지 욕구 제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욕구충족과 동기유발, 행동변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으며,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의 내용측정을 위해 다섯 가지 욕구구분이 활용되었다(Wahab, et. al., 1976; Brown, 2006; Jerome, 2013). 특히 기업이나 정부 등 공식적인 조직은 다수의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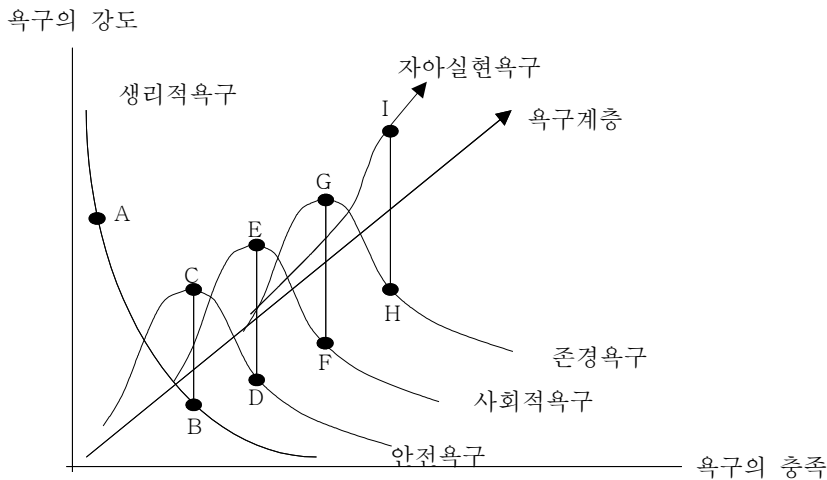
2) 각 욕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리적 욕구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이다. 생리적 욕구에는 배고픔, 갈증, 따스함 등의 기초적인 필요가 포함된다. 고용을 통한 소득은 사람들로 하여 이러한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둘째 안전욕구는 안전과 안정성, 질서와 위협으로부터 자유에 대한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는 보험, 연금 등의 제공에 의해 조직에서 충족된다. 셋째는 사회적욕구(애정욕구)는 소속감, 지지 등의 욕구이며 사회적 관계를 통해 충족된다. 넷째는 존경욕구로 자존감, 독립심, 충족감 등을 의미하며 동료들로부터의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충족된다. 다섯째는 자아실현욕구로 개인의 완성 추구로 보다 나은 인격체가 되고자 하는 욕구이다(Crooks, 1997).

직원들이 개인의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조직이 부여한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보상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욕구이론이 활용되었으며, Maslow의 후계자들은 다섯가지 욕구의 특징을 토대로 욕구이론을 재구성해 조직에서의 동기유발을 위한 인센티브 설계를 위해 활용하였다.³⁾



<그림 2> Maslow의 동기이론의 기본구조

한편 다섯가지 기본욕구(basic needs)의 충족을 통한 동기부여에 있어서 Maslow는 계층의 하위에 있는 욕구가 더 강하고 우선적이며,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의 욕구가 충족되는 만족-진행의 욕구 발전이 주장하였다(Maslow, 1943; Brown, et al., 2006). 따라서 욕구의 다섯 단계는 낮은 단계의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실현욕구까지 발전해 가게 되며, 하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보다 상위의 욕구가 동기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자료 : 오세덕 외(2013: 182)

<그림 3> Maslow의 다섯가지 욕구의 체계적 발전

위의 그림에서와 같은 욕구체계이론에서 욕구가 충족됨에 따라 생리적 욕구의 강도는 A수준에서 B 수준으로 하락되며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B 수준이 될 경우 보다 상위의 욕구인 안전욕구가 동기유발요인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이는 안전욕구가 가장 극대화된 지점에 해당된다. 다시 안전욕구가 점차

3) Maslow의 욕구 5단계이론을 발전시킨 동기이론으로는 Alderfer의 ERG이론(Alderfer, 1972), Herzberg의 2요인이론(Herzberg, 1964),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McClelland, 1961)이 대표적이다.

충족됨에 따라 욕구의 강도는 낮아지게 되며 다음단계의 욕구가 정점일 때 안전욕구의 동기유발요인은 사라지고 다음차원의 욕구가 동기유발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Maslow의 욕구체계에서 욕구는 A → B → C → D → E → F → G → H → I의 순서로 단계별로 발전하게 되고(오세덕 외, 2018: 181), 동기유발의 유인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Maslow에 의할 때 개인이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 대해 바라는 욕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켜 주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게 된다.

Maslow의 동기이론은 공식적인 조직에서 조직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설계를 위해 발전해 왔기 때문에 Maslow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동기이론의 기본 논리는 비공식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안전행동 유인을 위한 동기유발 구조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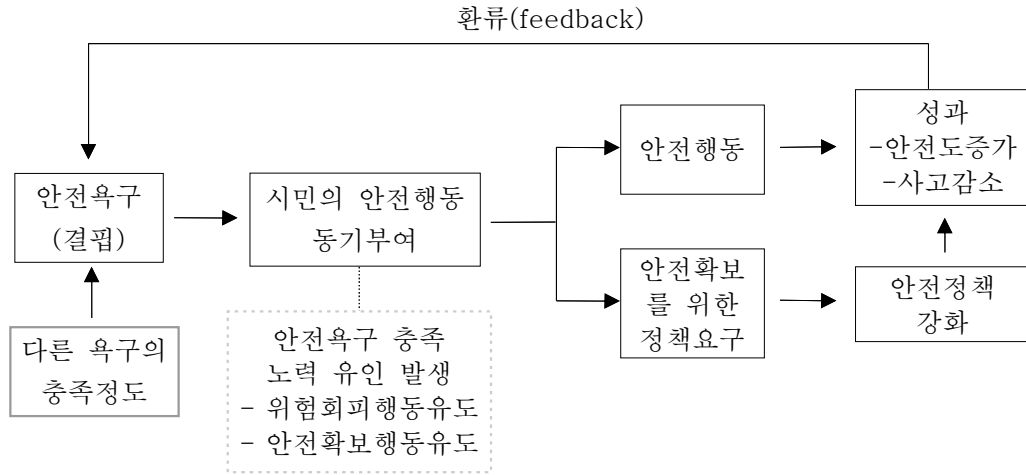
사회 속에서 시민의 안전행동 유도를 위한 유인은 외부의 제3자가 개인에게 직접적인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도적인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그 결과 안전행동이 이루어져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행동 동기유발을 위한 안전욕구의 관계구조는 조직에서의 동기부여와 인센티브와 구분된다고 하겠다. 사회에서 개인의 안전욕구는 생리적욕구와 동시에 추구될 수도 있으며, 사회적 욕구가 안전욕구보다 먼저 발생할 수도 있다.

III. 시민의 안전욕구와 안전행동의 유인

조직에서 조직원의 안전욕구와 생리적 욕구는 대표적인 결핍욕구(deficiency needs)의 하나로 분류된다(Herzberg, 1964; Steer, *et. al.*, 2004). 결핍욕구는 충족되지 않을 때 불만족을 유발하는 것으로 개인의 동기를 유발해주지 못하지만 관계욕구, 존경욕구, 자아실현욕구는 개인의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한다. 개인 스스로의 자발적인 통제를 요구하는 사회속에서 개인의 안전행동의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안전욕구가 필요하다. 이는 객관적인 안전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에 대한 개인의 결핍 인식 수준과 관련되며,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할 때 안전한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가 부여되고 그 결과 개인은 자발적으로 안전행동을 하게 된다.

안전행동의 동기부여는 결국 개인 스스로의 안전행동 노력을 유발하는 유인 발생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을 유도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동기부여 결과 개인은 스스로 안전행동을 실시하고, 타인과 안전정책 당국에게 안전확보를 위한 행동과 정책개입을 요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안전도 증가와 사고감소라는 성과로 이어져 개인차원의 안전도가 증진된다. 또한 이러한 욕구에는 안전욕구와 인접한 사회적 욕구도 관련될 수 있다. 사회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개인에게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결핍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욕구는 필수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욕구이론의 가정을 따를 때 시민의 안전행동 유도

를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개인의 안전욕구 뿐 아니라 다른 욕구의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4> 개인의 안전욕구의 안전행동 동기부여 메커니즘

시민의 안전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시민의 안전욕구를 조사·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세 가지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시민의 안전욕구 수준이다. 시민은 안전욕구뿐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생활을 영위한다. 시민의 안전행동과 관련된 안전욕구의 수준은 시민의 안전행동에 대한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인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욕구수준을 다른 욕구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민의 안전욕구는 시민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또한 안전욕구의 측정과 안전행동 동기 구조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IV.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욕구 조사 및 분석결과

1. 안전욕구 조사구조와 측정

시민의 안전행동의 유인구조 틀 속에서 시민의 안전욕구를 탐색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Maslow의 다섯가지 욕구를 기준으로 할 때 시민은 안전욕구를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며,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안전욕구의 중요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둘째 안전욕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안전욕구와 관련 있는 다른 욕구들은 무엇인가? 셋째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다른 욕구는 안전욕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탐색적인 수준에서 시민의 안전욕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Brown, et. al.(2006)의 욕구조사

를 참고로 Malsow가 제시한 다섯가지 욕구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조사지에 제시하였다.

- ① 의식주 등 생리적 욕구 (예 : 따뜻한 거주지, 급여가 높은 직장, 맛집)
- ②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안전욕구 (예 : 재난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안전한 고용관계)
- ③ 좋은 대인관계 욕구 (예 : 소속감, 타인과의 교체, 유대관계, 사랑받고 싶은 마음)
- ④ 존경과 사회적인 인정 욕구 (예 : 타인으로부터 인정·관심·명성·평판·지위를 확보)
- ⑤ 자아실현 욕구 (예 :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자기개발을 계속하고 싶다 등 계속적인 자기발전
을 통하여 성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아를 완성)

조사에서는 각 욕구별 부산시민의 욕구수준 조사와 함께 다섯가지 욕구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욕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는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안전욕구 중시 정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별도로 조사되었다.

또한 안전욕구가 안전행동에 영향을 줄 경우 안전욕구가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욕구5단계를 기준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의사결정에서 각 욕구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를 위해 다섯 가지 욕구간 비교를 위해서 매우 낮다 부터 매우 높다 사이를 5점 척도로 나누어 질문한 Brown, et. al.(2006)의 사례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각 욕구별로 전혀 고려하지 않음부터 매우 많이 고려함까지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기타 개인적 특성과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다음의 질문을 추가하였다. 여기에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가족규모, 직업, 주거형태 등이 포함되었다.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조건들은 안전욕구를 어떤 개인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교차분석과, 안전욕구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2. 안전욕구 조사대상 시민 확정

다섯가지 욕구와 시민의 안전욕구 수준을 조사하고 안전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탐색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시민조사를 위해 부산광역시의 통장을 조사대상으로 임의 선정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일부 통장의 수가 부족한 주민센터가 있었는데,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주민센터의 통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16개 구군별로 3개씩의 읍면동사무소를 선정하였고 부산광역시의 도움을 받아 각 읍면동의 통장회의에서 조사원들이 회의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읍면동 지역은 내·외국인 증감률을 반영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특이사항이 반영되는 지역으로 산복도로, 침수지역, 해안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6개 구군별로 각각 3개의 동 총 48개의 동을 선정하여 읍·면·동 통장회의(또는 주민자치회의)에서 진행하였

다. 부산시 관할 16개 구군의 48개 주민센터의 통장 총 1,348명이 설문대상이었으며, 응답자 가운데 유효한 응답 888개 설문지만을 선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민인식조사는 2014년 8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표 1> 주민인식조사대상 읍면동의 선정 및 조사대상자

구군	동	통장회의	구군	동	통장회의
		통장수			통장수
중구	중앙동(12)	13	해운대구	반여1동(39)	45
	보수동(31)	34		좌2동(21)	21
	영주2동(22)	25		우1동(67)	60
서구	암남동(27)	31	사하구	다대1동(37)	52
	서대신4동(16)	11		하단2동(56)	30
	충무동(21)	14		장림2동(35)	34
동구	수정2동(10)	23	금정구	구서2동(18)	30
	범일4동(18)	23		남산동(33)	35
	좌천4동(8)	8		장전2동(9)	11
영도구	동삼1동(58)	48	강서구	명지동(32)	33
	청학2동(29)	31		녹산동(16)	26
	남항동(25)	22		대저1동(16)	28
부산진구	개금3동(22)	29	연제구	연산9동(30)	35
	가야1동(33)	41		거제1동(31)	26
	전포3동(23)	17		연산6동(22)	25
동래구	온천3동(44)	33	수영구	광안1동(29)	29
	수민동(17)	30		망미1동(39)	40
	명륜동(28)	21		민락동(38)	27
남구	대연3동(31)	32	사상구	모라1동(36)	36
	용호1동(33)	40		삼락동(20)	13
	우암동(24)	29		염궁동(25)	28
북구	구포2동(29)	34	기장군	정관면(36)	46
	화명1동(22)	25		기장읍(41)	44
	만덕2동(7)	23		장안읍(32)	26

3. 조사결과

1) 응답자 특성

설문에 응답한 전체응답자 888명 중 여성은 61.6%, 남성은 38.4%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연령별로는 51~60세가 44.8%로 가장 많았고, 41~50세가 20.3%, 61세 이상이 19.8%, 31~40세가 9.1%, 21~30세가 6%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가 39.1%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전문직이 23.4%, 서비스업종사자가 9.7%, 공무원이 8.9%, 농·림·어업 종사자가 5.9%, 기능직 종사가 2.4%, 단순노무종사자가 2.5%였다. 기타도 7.5%의 비중을 차지했다.

월평균소득은 100~300만원미만이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300~500만원 미만이 25.6%, 100만원 미만이 20.9%, 500만원 이상이 9.5%였다. 거주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8.6%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 35.7%, 연립주택 11%, 영구임대주택 1.8%, 기타도 2.8%로 조사되었다.

<표 2> 응답자의 특성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성	341	38.4
	여성	547	61.6
연 령	21-30세	53	6.0
	31-40세	81	9.1
	41-50세	180	20.3
	51-60세	398	44.8
	61세 이상	176	19.8
직 업	농·림·어업 종사자	52	5.9
	자영업전문직	208	23.4
	공무원	79	8.9
	서비스업종사자	86	9.7
	기능직종사자	21	2.4
	단순노무종사자	22	2.5
	학생	6	0.7
	전업주부	347	39.1
기타	67	7.5	
월 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186	20.9
	100~300만원 미만	391	44.0
	300~500만원 미만	227	25.6
	500만원 이상	84	9.5
거주주택유형	아파트	432	48.6
	단독주택	317	35.7
	연립주택	98	11.0
	영구임대주택	16	1.8
	기타	25	2.8

2) 안전욕구의 중요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표 3> 가장 중요한 욕구

	빈도	유효퍼센트
생리적 욕구	302명	36.0%
안전욕구	173명	20.6%
사회적욕구	144명	17.2%
존경욕구	133명	15.9%
자아실현욕구	86명	10.3%
합계	838명	100.0%
무응답	50명	
합계	888명	

Maslow의 다섯가지 욕구 중 가장 중요한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 생리적 욕구가 가장 중요한 욕구

라는 답변이 302명(36%)로 나타났으며, 안전육구는 두 번째로 많은 173명(20.6%)로 나타났다. 부산시민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다섯가지 육구에 대한 중요도는 ‘생리적육구, 안전육구, 사회적육구, 존경육구, 자아실현육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육구들에 비해 생리적 육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육구를 조사한 결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육구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여성이 121명(총 응답자의 24.2%) 남성이 44명(총 응답자의 16.1%)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여성에게 안전이라는 이슈가 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남성은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 육구보다 존경육구, 관계육구가 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4> 성별 기준 가장 중요한 육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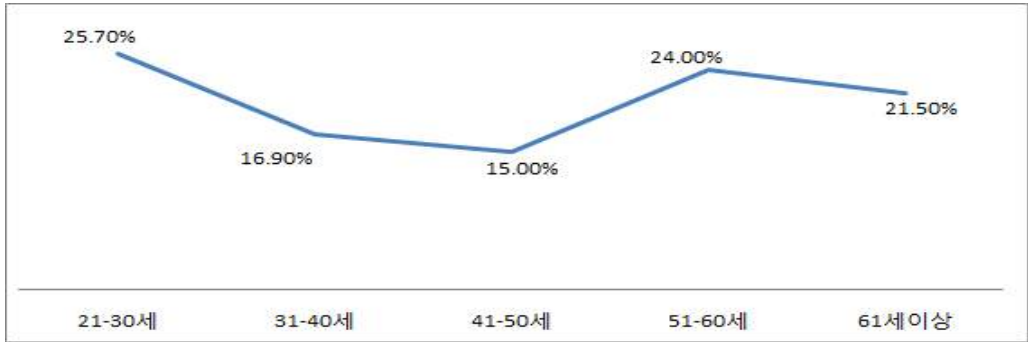
		남자	여자
생리적 육구	빈도	96	184
	성별중%	35.0%	36.8%
안전육구	빈도	44	121
	성별중%	16.1%	24.2%
사회적육구	빈도	52	80
	성별중%	19.0%	16.0%
존경육구	빈도	57	58
	성별중%	20.8%	11.6%
자아실현 육구	빈도	25	57
	성별중%	9.1%	11.4%
전체		274	500

연령별로 다섯가지 육구 중 가장 중요한 육구를 조사한 결과 안전육구가 가장 중요한 육구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21-30세 사이가 9명이 응답하여 동일 연령대에서 25.7%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답변은 51-60세 사이가 90명으로 동일 연령대에서 24%를 차지하였다. 30대-50대는 15%대로 나타나 안전육구에 대한 중요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령별 가장 중요한 육구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이상
생리적 육구	빈도	12	25	77	129	42
	나이중%	34.3%	42.4%	48.1%	34.4%	28.2%
안전육구	빈도	9	10	24	90	32
	나이중%	25.7%	16.9%	15.0%	24.0%	21.5%
사회적육구	빈도	3	3	23	71	30
	나이중%	8.6%	5.1%	14.4%	18.9%	20.1%
존경육구	빈도	7	7	14	51	38
	나이중%	20.0%	11.9%	8.8%	13.6%	25.5%
자아실현 육구	빈도	4	14	22	34	7
	나이중%	11.4%	23.7%	13.8%	9.1%	4.7%
전체		35	59	160	375	149

20대 이상 연령대별로 가장 중요한 육구를 안전육구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그림으로 비교하면 청년층과 장년층의 안전육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30-40대 중년층 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의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미디어 노출에 대해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0대-50대의 연령층에서는 직장생활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훈련되어 있으며, 조직에서 안전조치를 확보해 주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51세 이상의 경우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의 안전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은퇴 준비와 관련되어 안전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림 5> 가장 중요한 육구로서 안전육구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

최종학력별로 다섯가지 육구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육구를 교차분석 한 결과 안전육구를 가장 중요한 육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중졸미만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로 나타났고, 전문대졸과 대졸 등 학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 안전육구를 가장 중요한 육구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6> 최종학력별 가장 중요한 육구

육구	빈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학력중%			
생리적 육구	빈도	29	138	38	77
	학력중%	20.30%	36.3%	41.8%	33.65%
안전육구	빈도	29	84	16	34
	학력중%	30.35%	22.1%	17.6%	18.60%
사회적육구	빈도	18	78	16	18
	학력중%	19.50%	20.5%	17.6%	11.10%
존경육구	빈도	27	57	10	20
	학력중%	29.30%	15.0%	11.0%	11.65%
자아실현 육구	빈도	1	23	11	46
	학력중%	0.55%	6.1%	12.1%	25.00%
전체		104	380	91	195

소득별로 다섯가지 육구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육구를 조사하여 교차분석 한 결과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가장 많은 답변인 28.8%가 나타났고, 1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두 번째로 많은 25.6%로 나타났다. 종합할 때 소득이 낮거나 높은 집단의 안전육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소득이 100만원-500만원 인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욕구로 안전 욕구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낮았다.

<표 7> 소득별 가장 중요한 욕구

		100만원미만	100만원-300만원	300만원-500만원	500만원 이상
생리적욕구	빈도	49	117	86	26
	수입중%	31.4%	34.5%	45.0%	39.4%
안전욕구	빈도	40	64	34	19
	수입중%	25.6%	18.9%	17.8%	28.8%
사회적욕구	빈도	34	59	25	8
	수입중%	21.8%	17.4%	13.1%	12.1%
존경욕구	빈도	26	57	26	1
	수입중%	16.7%	16.8%	13.6%	1.5%
자아실현욕구	빈도	7	42	20	12
	수입중%	4.5%	12.4%	10.5%	18.2%
전체		156	339	191	66

가족의 규모별로 가장 중요한 욕구에 대한 인식조사를 교차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욕구로 안전욕구를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3대가 거주하는 대가족인 경우였고, 부모와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 1인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규모가 클수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족의 수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안전을 중요시 여기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표 8> 가족의 규모별 가장 중요한 욕구

		3대거주	2대거주	1인가구	기타
생리적 욕구	빈도	35	197	32	18
	가족중%	40.2%	38.3%	32.7%	23.7%
안전욕구	빈도	22	107	16	19
	가족중%	25.3%	20.8%	16.3%	25.0%
사회적욕구	빈도	9	83	24	15
	가족중%	10.3%	16.1%	24.5%	19.7%
존경욕구	빈도	9	70	19	19
	가족중%	10.3%	13.6%	19.4%	25.0%
자아실현욕구	빈도	12	57	7	5
	가족중%	13.8%	11.1%	7.1%	6.6%
전체		87	514	98	76

※ 기타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경우 등.

3) 일상생활의 의사결정시 욕구 고려정도

앞서 다섯가지 욕구 중 가장 중요한 욕구에 대한 인식에서 「생리적욕구 > 안전욕구 > 사회적욕구 > 존경욕구 > 자아실현욕구」 순서로 나타난 것과 달리 일상생활의 의사결정에서 욕구 고려정도를 조사한 결과 부산시민은 사회적욕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안전욕구, 생리적욕구, 자아실현욕구, 존경욕구의 순으로 많이 고려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욕구간 고려정도의 차이는 그리 높지 않았으며, 모든 욕구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보면 부산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관계욕구의 충족정

도를 비교하면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표 9> 의사결정시 다섯가지 욕구의 고려정도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수
생리적욕구	3.70	.774	831
안전욕구	3.73	.778	815
사회적욕구	3.76	.773	819
존경욕구	3.55	.796	821
자아실현욕구	3.65	.815	827

Herzberg(1964), Alderfer(1972) 등의 조직내 동기이론 연구자들은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는 결핍에 대한 욕구로 매우 유사한 속성을 가진 반면, 사회적욕구, 존경욕구, 자아실현욕구는 보다 추상적인 욕구이며 개인의 직무동기를 유발하는 동기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섯가지 욕구의 관계를 분석하고 안전욕구와 보다 관련이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섯가지 욕구의 중요도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간 Pearson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으며, 관계욕구와 존경욕구 자아실현욕구 간에 Pearson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할 때 기존의 조직에서 동기이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는 사회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도 밀접하게 관련된 욕구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표 10> 다섯가지 욕구간 상관분석

	생리적욕구	안전욕구	사회적욕구	존경욕구	자아실현욕구
생리적욕구	1	.474***	.406***	.401***	.376***
안전욕구	.474***	1	.372***	.416***	.396***
사회적욕구	.406***	.372***	1	.580***	.518***
존경욕구	.401***	.416***	.580***	1	.546***
자아실현욕구	.376***	.396***	.518***	.546***	1

※ Pearson 상관계수

* P<0.1, ** P<0.05, *** P<0.001

4) 안전욕구의 영향요인

시민의 안전욕구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적 차원에서 연구하기 위해 안전욕구의 고려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회귀분석은 세 개의 모형을 나누어 각각 실시했다. 우선 모델1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만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모델2는 시민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함께 Malsow의 욕구5단계이론 중 안전욕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생리적 욕구와 관계욕구의 고려정도를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여 사회경제적 요인과 함께 다른 욕구의 수준이 안전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델3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다른 욕구수준과 함께 안전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시민의 환경개선 필요도에 대한 인식이 안전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모델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모델1을 통해 시민의 사회경제적 변수로서 성별, 나이, 학력, 수입, 가족의 규모를 선택하여 이들 변수가 안전욕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 변수는 학력, 수입, 가족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가족의 규모가 클수록 의사결정에서 안전욕구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성별 더미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의사결정과 행동시 안전욕구를 보다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행동시에 안전욕구를 보다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를 통해 다섯가지 욕구 중 안전욕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리적 욕구와 사회적욕구’의 고려정도를 모델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생리적욕구와 사회적욕구 모두 안전욕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외에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경우 학력만이 3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모델3에서는 환경개선필요도에 대한 인식과 안전문화수준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안전욕구에는 생리적욕구, 사회적욕구, 환경개선필요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안전욕구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모델 1		모델 2		모델 3		VIF
	비표준화 (B)	표준화 (β)	비표준화 (B)	표준화 (β)	비표준화 (B)	표준화 (β)	
(상수)	3.131***		1.321***		1.096***		
성별더미	-.028	-.018	-.038	-.024	-.045	-.028	1.076
나이	-.045	-.061	.000	-.001	.007	.009	1.435
학력	.118***	.171***	.056**	.082**	.063**	.092**	1.430
수입	.068**	.077**	.029	.032	.029	.032	1.076
가족	.081**	.081**	.043	.043	.036	.036	1.099
생리적욕구			.357***	.359***	.357***	.359***	1.268
사회적욕구			.190***	.190***	.175***	.174***	1.188
환경개선필요					.096**	.091**	1.083
안전문화수준					-.037	-.033	1.054
R ²	.072		.263		0.278		

* P<0.1, ** P<0.05, *** P<0.001

※ 성별더미 : 남=1, 여=0

VI.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정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 스스로가 안전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안전한 행동을 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행동과 안전학

습은 개인 의지를 통해 발현되는 것이며 안전행동을 유발하는 개인의 내적 행위유인을 안전행동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개인 차원의 안전행동을 유도하는 안전행동동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안전욕구를 토대로 한 안전행동 동기에 대해서도 연구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Maslow의 욕구5단계에서 제시된 안전욕구는 다양한 욕구들 속에서 시민의 안전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유인(driving force)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안전욕구 수준을 측정하고 안전욕구의 중요도와 고려정도를 다른 욕구들 속에서 측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탐색적 수준이지만 안전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요인들, 특히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다른 욕구의 수준의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을 통해 어떤 요인이 시민의 안전욕구에 주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안전욕구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욕구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Maslow가 분류한 다섯가지 욕구들 중 가장 중요한 욕구에 대한 부산시민 인식 조사결과 가장 중요한 욕구는 생리적 욕구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전욕구는 두 번째로 높은 20.6%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순서는 생리적욕구, 안전욕구, 사회적욕구, 존경욕구, 자아실현욕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산시민의 기본적인 욕구는 결핍성 불만족을 초래하는 위생요인(hygiene needs)에 해당되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에서 의식주 등 생리적 욕구를 우선 고려한 뒤에 안전을 고려하는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시민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안전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는가를 비교한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20-30대와 50대 이상인,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나 500만원 이상일 경우, 가족의 규모가 클수록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일상생활의 의사결정과 행동에서 욕구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지를 각각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사회적욕구를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으며, 안전욕구, 생리적 욕구, 존경욕구, 자아실현욕구의 순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욕구의 고려정도에 대한 인식간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섯가지 욕구의 고려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상관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동기이론가들의 주장처럼 위생요인에 해당되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는 다른 욕구에 비해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요인에 해당되는 사회적욕구, 존경욕구, 자아실현욕구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위생요인간 상관계수보다 만족요인간 상관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탐색적인 차원에서 안전욕구를 종속변수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로 성별, 나이, 학력, 수입, 가족을 기본모델(모델1)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기본회귀모델에, 다른 욕구(생리적욕구, 사회적욕구)의 고려정도를 포함한 모델2와, 환경개설 필요성과 안전문화수준에 대한 인식도를 독립변수 추가한 모델3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델1인 사회경제적 변수에서는 학력, 수입, 가족 안전욕구 고려정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델2에서는 생리적 욕구와 사회적욕구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생리적 욕구의 고려정도의 영향이 관계욕구의 고려정도의 영향에 비

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3에서는 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안전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³의 영향을 나타냈으나, 안전문화수준에 대한 인식과 안전욕구간의 관계는 부(-)의 관계로 나타나 안전문화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안전욕구는 낮아지고, 안전문화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안전욕구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안전욕구가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차원에서 안전욕구의 수준을 조사하고 그 영향요인을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시민의 기본적 욕구 중 생리적 욕구가 가장 높기 때문에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안전욕구 또한 다른 욕구에 비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으나 경제적 활동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경제적 욕구충족을 위해 안전을 간과하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안전이 중요한 욕구의 내용이지만 경제적인 욕구가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부가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캠페인 노력을 기울여도 시민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에서 안전이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욕구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캠페인을 계획해야 한다. 따라서 안전을 관리하는 당국의 안전캠페인은 구체적인 안전관련 지식과 정보 제공과 함께 생활에서 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안전문화 조성에도 초점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체와 생명의 안전과 경제적 보상 중에서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교해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안전캠페인을 광범위하게 펼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의 사회화를 위해 삶의 만족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에 안전이 있음을 자각할 수 있는 내용의 캠페인을 폭넓게 실시해야 한다.

탐색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안전행동과 안전욕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후속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기존에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심리적 요인으로 ‘위험지각’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향후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위험지각뿐 아니라 안전욕구를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욕구가 높을 경우 실제 시민에게 안전행동이 유발되는지를 연구하여 욕구와 행동의 관계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찬선. 2008. 기계경비시스템 이용자의 안전욕구충족 척도 개발과 적용.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6: 47-64.

- 박영만, 김은정. 2011. CCTV를 통한 시민들의 안전욕구충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7): 437-447.
- 오세덕, 이명재, 강제상, 임영제. 2013. 행정관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유영창, 이종환, 김찬선. 2009. 도시크기에 따른 기계경비시스템 이용자의 안전욕구충족과 생활만족 비교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2): 330-341.
- Bailey, N., N. Ellis, and H. Sampson. 2010. *Safety and Perceptions of Risk: A Comparison between Respondent Perceptions and Recorded Accident Data*. The Lolyd's Register Educational Trust.
- Brown, K. et. al. 2006. Maslow's Hierarchy of Needs Used to Measure Motivation for Religious Behavior. *Mental Health. Religion and Culture*. 9(1): 99-108.
- Crooks, T. 1997. Motivation Theory : Moving beyond Maslow. *ELT Management*. 23: 18-20.
- Forde, D. R. 1993. Perceived Crime, Fear of Rime and Walking Alone at Night. *Psychological Reports*. 73(2): 403-407.
- Herzberg, F. 1964. The Motivation-Hygiene Concept and Problems of Manpower. *Personnel Administration*. 27(1): 3-7.
- Holtzman, R. 2001. Social Risk Management: A New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Protection and Beyond.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8(4): 529-556.
- Jerome, N. 2013. Application of the Maslow's Hierarchy of Need Theory: Impacts and Implications of Organizational Culture, Human Resource and Employee's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Invention*. 2(3): 39-45.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370-396.
- Maslow, A. H. 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Van Nostrand: New York.
- Maurice, P. et. al. 1998. Safety and Safety Promotion: Conceptual and Operational Aspects. WHO.
- Steers, R., R. T. Mowday, and D. L. Shapiro. 2004. The Future of Work Motivation Theor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9(3): 379-387.
- UNDP. 1994.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UNDP.
- Wahba, M. et. al. 1976. Maslow Reconsidered: a Review of Research on the Need Hierarchy Theor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5:212-240.
- WHO. 1989. Manifesto for Safe Communities: Safety-a Universal Concern and Responsibility for all. 1st World Conference on Accident and Injury Prevention 1989.

서재호: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논문: 행정환경과 행정기구의 변화. 2008년 2월), 현재 부경대학교 행정학과에 재직중이다. 조직이론, 지방행정, 규제정책, 위기 및 재난관리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주요 저술로는 지방자치의 쟁점(2014), 새행정학2.0(2014), 국가위기관리법제론(2009) 등이 있다(jaseo@pknu.ac.kr).

